

자원 절약, 행복 나눔... 환경보전 함께 실천해요

중고물품 플리마켓, 어린이 환경도서판, 종이 이글루 만들기, 영산강 생태탐방.

문화와 놀이, 체험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행사가 마련된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종덕)·KWECO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오는 10월1일~3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일원에서 '2022 영산강 환경문화년'을 개최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물 문화·환경·나눔마당으로 잔디밭 등 넓은 야외공간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지난해와 달리 대면행사로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친환경이 테마다. 주최측은 환경단체와 함께 자원 절약과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환경보전 실천 공간을 6개 ZONE으로 조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24~25일 연희단 버들소리의 공연과 지역자전거 동호회가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자전거 행진' 등을 진행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 주최측은 오는 10월1일~3일까지 본격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ECO마켓 ZONE'에서는 시민생활환경회의, 지구상점, 광주공유센터 등 환경 기관과 연계해 환경 캠페인과 친환경 제품 판매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주요 환경 트렌드를 소개하고 친환경 먹거리 판매, 주방세제 나누기, 폐우산 업사이클링 체험,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환경도서 ZONE'은 승촌공원 잔디에 놓인 빈백에 앉아 어린이 환경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야외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어린이 도서 할인 판매 마켓도 개최한다.

영산강보관리단·문화관, 10월 1일~3일 '영산강 환경문화년'

ECO마켓, 환경도서, 자전거 장터, 나눔, 전시&공연 등 다채

'친환경 놀이 ZONE'은 물 놀이터, 공유 놀이터, 환경 놀이터, 생태 놀이터 등 테마가 있는 놀이존으로 운영된다. 대나무 물총 만들기, 강물 청소부 게임, 물로켓 발사 시험, 공유 장난감 대여, 종이 이글루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생물채집과 관찰로 구성된 영산강 생태 환경 체험 교육도 열린다.

'나눔 ZONE'는 자원순환, 공유경제를 실천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의 중고물품 시장 키즈 에코 플리마켓이 열리며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는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KWECO 영산강문화관 임직원들의 기부 물품 판매 행사로 수익금은 기부한다.

'환경문화 전시&공연 ZONE'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산강 어린이 환경 미술제' 수상작을 전시하며 특별 전시로 환경 운동 화가인 신윤 어린이의 '환경 이야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1~2일(오후 2시)에는 파랑새 교육 극단의 환경교육 인형극 '물의 요정 방울이', '수돗물이 안나와요'가 공연된다.

'자전거 ZONE'에서는 자전거 장터가 열린다. 일반인들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개최되며 지역 업체가 참여, 다양한 자전거용품 판매한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사가 승촌공원 자연해설을 진행하는 '가족 자전거 생태 투어'도 진행된다. 그밖에 우유팩, 종이팩 등 재활용 자원을 대상으로 회수·공유 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자원순환네트워크 등 지역 각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지속적인 영산강 환경문화 활성화를 위해 30일에는 광주공유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KWECO 영산강문화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축제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 또는 인원제한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문화관 내이 버카페 및 안내데스크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영산강 문화관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전시 체험 및 공연 장면.

김호연 작가와 '불편한 편의점'에서 만나요

전남대 도서관, 29일 '한 책 토크 콘서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동네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오늘을 사는 이웃들의 시란고난한 삶을 공감 어린 서사로 풀어내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소설은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소속자인 독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숨은 재능이 있다. 편의점 여자 사장은 독고라는 남자의 장점을 읽어낸다. 두 인물의 아름다운 우정은 타인에게 쉽게 울타리를 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작품은 특정 연령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올해 베스트셀러에 자리매김했다. 아마도 독자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의 편의점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것 같다.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 김호연 초청 콘서트가 열린다. 전남대 도서관(도서관장 장우권)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국제회의동 융복합홀에서 '한 책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콘서트에서 김호연 작가는 작품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김 작가는 그동안 장편소설 '연적', '고스트라이터즈', '파우스터' 등을 펴냈다. 최근에는 '불편한 편의점 2'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 열리며 작가의 강연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현장 참여는 100명 선착순으로 광주-전남 토크 홈페이지나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장에서는 작가가 직접 사인한 도서를 배부하며 사전 질문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30명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유료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후 행사는 10월 문학기행, 11월 독서후기 공모전, 12월 독서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태성 쌤과 함께하는 '광주이야기'

광주관광재단 특별강연... 29일 시청 대회의실 500명 선착순

크별쌤 최태성의 강의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

광주관광재단은 오는 29일 최태성 한국사 전문 강사와 함께 '꿀잼광주 역사 문화여행'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최태성 강사는 '역사의 쓸모', '일생일몰' 등 역사적 집필과 방송 '벌거벗은 한국사', '역사저널 그날' 등을 통해 역사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강연은 '역사의 혁명과 시간이 축적된 도시, 빛나는 광주 이야기'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다.

강연은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500명 정원 선착순 입장 방식이다. 역사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광주관광재단 김준영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광주 도심 곳곳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강연에 광주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광주에 자긍심을 갖고 광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현지 여행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 줄 수 있는 광주 여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새로운 물결의 사유... 이색적 사유의 여정

목포 출신 김비주 시인 '그해 여름은 모노톤으로' 펴내

시의 본령은 무엇일까. 아마도 새로움이 아닐까 싶다.

익숙한 상황과 묘사는 새로운 감흥을 주지 못한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이 문학의 본질일 것 같다. 독자들은 전혀 낯선 감각과 수사로 엮어진 언어와 사유의 체계에 감동하게 된다.

목포 출신 김비주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그해 여름은 모노톤으로'는 새로운 사유의 전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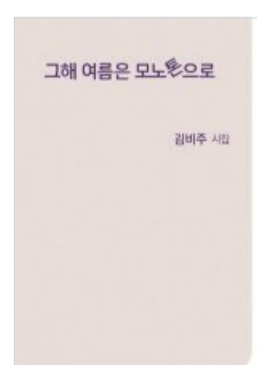
상상인 시인선으로 출간된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는데, 이색적인 사유의 여정을 보여준다.

시인이자 고광식 평론가가 '김비주의 시세계는 새로운 물결의 사유들로 빛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시인의 참신한 시적 상상과 이를 언어로 형상

화내는 숨씨는 이채롭다.

'낯은 시로 인사를 건네고 신선한 시인의 시집을 읽었다/ 낚지 않아서 신선하다 못해 물비늘 튀던 어판장/ 공매 시간에 나를 데리고 간다// 퍼덕이던 생이 활어처럼 공중에서 날갯짓의 언어를 뿜는다/ 한참의 피차가 서로를 건네고/ 실려 가던 물고기들 언저리에 물이 쏟아지고/ 물매기, 땅에 퍼덕이던 붉은 고기, 작은 쥐치가 손에 들려 있다// 낯선 곳에서의 하~는 바다를 통으로 가르고/ 세마리의 물고기를 얻었다...

위 시 '낯설게 하기'는 한마디로 낯설다. 어판장의 풍경은 '낯설게 하기'가 쏟아지는 곳이다. '퍼덕이던 생이 활어처럼' 퍼덕이는 곳은 일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이미지를 선사한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의 풍경은 사실은 그곳 또한 우



리 삶의 일상과 지극히 다름을 바라는 의미로 전해준다.

고광식 평론가는 "김비주 시인의 사유의 여정 위에서 '새로운 물결'을 모색하는 중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인의 사유에서 에너지가 분출한다"고 평한다.

한편 김비주 시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2020년, 2022년 부산문화예술재단 예술장학지원금 시 부문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시집 '오후 석 집, 바람의 말', '봄길, 영화처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대구, 음악으로 화합의 장 마련한다

'달빛통땀 포크콘서트' 10월 8일 북구문화센터

광주와 대구의 달빛통땀이 음악으로 보다 견고해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민예총과 달빛통땀 협회가 주관하는 '2022 달빛통땀 포크콘서트'가 오는 10월 8일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달구별 빛고을 통기타 동맹의 앞글자과 뒷글자라 따 이름 지은 '달빛통땀'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밀착형 음악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번째 교류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이번 콘서트는 광주와 대구의 통기타 포크음악 심어

라이어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번 공연에는 박강수, 퍼플에일, 그리Go, 엄덕수, 밴드 다미 등 광주와 대구의 뮤지션 다섯 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 광주지역 통기타 문화 확산을 위해 포크뮤지션과 아마추어 통기타 동호회원과 상생 무대인 '달빛통땀 포크 리부팅(rebooting) 버스킹' 공연도 이어진다.

자세한 정보는 달빛통땀 포크콘서트 홈페이지(www.facebook.com/Folkmoonligh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